

#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 특별채용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 특별채용 촉구 결의안

( 구 재 용 의 원 대 표 발 의 )

의안 번호	1056
----------	------

발의연월일 : 2013. 11 . .

발 의 자 : 구 재 용 의 원

(찬성자 10인)

## 1. 주 문

2004년 인천외고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외쳤던 두 해직교사에 대하여 인천교육계의 화합과 타시도와의 형평성에 비추어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상생의 시대정신을 발휘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가. 인천교육계의 화합과 인천외고 사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박춘배, 이주용 교사 복직을 촉구한다.
- 나. 인천광역시교육청이 해직교사 복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 2. 제안이유

- 가. 인천외고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외쳤던 두 교사가 해직되어 9년째 교단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기에 두 해직 교사의 복직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인천교육계의 화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 나. 현재 인천지역 국회의원 다수가 인천외고 해직교사 복직에 동의하였으며, 인천광역시의회도 지난 2012년 2월 10일 제198회에서 「인천외고 사태 완전 해결과 해직교사 복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고

다. 2013년 6월 문용린 서울시교육감도 사립학교 민주화 관련 해직교사를 복직시키고 교육부도 이를 허락하는 등 사립 민주화 관련 교사 특별채용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또한, 문용린 서울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이던 2000년에도 100명이 넘는 교사들이 공개경쟁 없이 채용된 바 있었고 서남수 장관이 부교육감이던 경기도와 서울에서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10여명이 특별 채용된 전례가 있었음.

라. 이처럼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특별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징계처분이나 사학분쟁으로 해임된 교사들도 특별채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학분쟁으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채용할 수 없다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 3. 결의안 이송처

가. 인천광역시교육청

### 4. 칙 부

가.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 특별채용 촉구 결의안

#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 특별채용 촉구 결의안

2004년 인천외고 사태는 인천교육의 발전과 사립학교의 정상화 과정에서 빚어진 전국적인 사건이었다. 특히 진정한 학교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구성원들의 화합과 동의에 기초하여 민주적인 학사운영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린 사건이었다.

이러한 교훈을 얻는 과정에서 큰 희생과 갈등이 있었으며, 당시 학내 민주주의와 인권을 외쳤던 두 해직 교사가 9년째 교단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인천 시민 모두의 아픔으로 남아 있으며 인천외고 해직 교사의 복직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인천교육계의 화합을 위해서 인천시민 모두가 요구하는 사항이다.

특히 올해 6월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사립학교 민주화 관련 해직 교사를 복직시키고 교육부도 이를 허락하여 특별채용이 이루어지는 등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특별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징계처분자나 사학분쟁으로 해임된 교사들도 특별채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두 해직교사의 복직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기에 이제 인천교육을 책임지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이 화해와 상생의 시대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다음에 제시한 사항에 대해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인천교육계의 화합과 인천외고 사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박춘배, 이주용 교사를 복직을 촉구한다.

하나. 인천광역시교육청이 해직교사 복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1 월 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